

데이콤

PC통신요금 정액제 방침

데이콤(대표 손익수)이 PC통신서비스를 멀티미디어 형태인 천리안 매직콜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PC통신 요금구조를 현행 종량제에서 정액제에 가까운 종량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천리안 서비스를 천리안 매직콜로 전면 개편하는 9월부터 PC통신 요금 구조를 대폭 손질 현행 종량제에 정액제 개념을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PC통신서비스가 멀티미디어 형태로 바뀔 경우 가입자들의 통신 접속시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5천원의 최저 사용요금제도에 기본 사용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 체계는 월 10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5천~6천원 정도의 기본 요금을 받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이용시간이 10시간을 넘어설 경우 종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의 PC통신 요금이 이처럼 정액제에 가까운 체제로 전환될 경우 그동안 데이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받아왔던 하이텔, 나우누리 등 경쟁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직콜원" CD롬 타이틀 무료 배포

데이콤은 "천리안 매직콜"의 전용 에뮬레이터인 <매직콜-원>을 CD롬 타이틀로 제작해 전국의 데이콤 지정점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천리안매직콜은 데이콤이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멀티미디어형 PC통신서비스로 이야기나 데이콤링크와 같은 기존 통신 에뮬레이터 대신 윈

도즈용 에뮬레이터인 <매직콜-윈>을 설치해야만 그래픽, 사운드, 동화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직콜-윈>은 현재 천리안 처음화면 <100.천리안매직콜이벤트>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14.4Kbps 고속모뎀으로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콤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이를 CD롬 타이틀로 제작 보급키로 했다. 데이콤은 또 CD롬 드라이브를 갖추지 못한 사용자들을 감안 향후 성능이 개선된 <매직콜-윈>부터는 CD롬과 함께 디스켓으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데이콤은 <매직콜-윈>에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이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고 난 뒤의 사용소감을 다음달 8월 15일까지 현상공모한다.

초고속 ATM시험망 구축

데이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인 B-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핵심기술인 ATM(비동기전송 방식) 기술확보를 위해 ATM시험망을 구축,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 데이콤은 초고속통신망 관련 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최근 5억여원을 투자, 서울 용산본사와 대덕 종합연구소에 각각 ATM교환기를 설치하고 45MBPS(초당 4천5백만비트)급 광케이블로 연결한 ATM시험망을 구축, 운용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기존의 패킷교환방식보다 30배 이상 빠른 고속전송방식인 '프레임 릴레이'의 기간망으로 ATM기술을 활용하는등 광대역통신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상용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기 위해 ATM분야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TM은 음성, 영상, 문자 등 다양한 정보의 종류 및 통신 목적에 맞는 속도를 선택, 전송하는 최첨단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화상전송, 컴퓨터통

신, 교환기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국PC통신

하이텔 토론광장, 사회·문화토론 가장 많이 이용

하이텔 이용자들은 토론광장 중 사회·문화토론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PC통신(대표 김근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하이텔 "토론의 광장"을 통해 모두 1천여 안건이 발의 1백39건이 정식의제로 채택됐는데 이중 사회문화분야가 48건을 기록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문화분야는 이용자도 8천5백9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학, 기술, 컴퓨터분야로 35건(이용자 4천2백63명)을 차지했으며 정치·경제분야 30건(3천5백28명), 학술·교육분야 14건(2천6백43명), 방송·연예분야 12건(1천5백61명)이었다.

PC통신 사용자들, 동호회 최다 이용; 설문조사 결과

PC통신 사용자들은 동호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다음으로 자료실, 게시판, 여론광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C통신이 최근 하이텔 이용자 5천1백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1%가 동호회를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로 꼽았으며 이중 83.5%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생활, 문화(28%), 뉴스, 인물(14%), 광고, 홍보(1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중 58%는 486PC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운드카드(77%), CD롬 드라이브(47%), 1만4천4백bps모뎀(61%)을 각각 보유해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우콤

PC통신서비스 “나우로원V1.5” 발표

나우콤(대표 강창훈)은 자사의 PC통신 서비스인 나우누리의 에뮬레이터 “나우로원V1.0”을 업그레이드한 “나우로원V1.5”를 최근 발표했다. 이 버전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WWW(월드와이드웹)서비스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인 “WWW 콜 기능”을 내장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버전은 프로그램내부에 WWW접속프로그램인 윈속(Winsock)을 내장 기존에 WWW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중인 통신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윈속프로그램을 뛰어아웠던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나우로원1.5는 자동적으로 WWW관련프로그램을 불러들이고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WWW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나우로원1.5는 WWW외에도 FTP, 고퍼, IRC 등 인터넷의 각종 서비스를이용하기 위한 외부프로그램을 해당메뉴를 클릭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한편 나우콤은 나우로원 1.5버전에 이어 오는 10월경에는 하이퍼 텍스트방식을 도입한 2.0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정보서비스를 다양화 하였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지난 5월 주제별 특허정보 패키지서비스를 개발 1차 시행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예상밖의 호응을 받아 최근 2차 서비스에 들어갔다. 특허정보 패키지서비스는 기업체가 필요한 특허관련 기술정보를 주제별로 사전에 목록을 정리 배포 구입을 원하는 기업체에 판매하는 새 서비스이다. 산업기술정보원 1차로 양방향 CATV 전구형 형광등 등 전기·전자 15개 과제를 비롯해 기계·금속 등 4개분야 총 75개 과제를 배포했는데 배포 1달만에 1백50건의 신청이 쇄도하자 최근 동분야에서 1백8개 과제를 추가 발굴 총 1백83개 과제에 대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강병열 원문서비스팀 부장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동향 및 특허정보를 패키지로 서비스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2차 과제도 지난 10

산업기술정보원

특허관련 기술정보서비스 다양화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이 최근 특허관련

일 동안 3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정원은 이달부터 특허정보 패키지서비스에 이어 특허원문 SDI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SDI서비스는 기업체가 원하는 국제 특허분류 단위별로 일정기간 관련자료를 서비스하는 방식. 기정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와 CD롬자료를 활용해 미국 일본유럽 등 세계특허를 대상으로 원문서비스를 실시 관련업체들의 기술개발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정원은 정보서비스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문발송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성을 제고해왔으나 방대한 원문을 우편물로 발송 기업체에 자료 도착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

기정원은 이달부터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분할 대량이용자가 밀집한 지역은 셔틀방식을 도입해 직접배포를 시험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정원은 장기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특허원문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LG정보통신

TRS 새 장비 개발 형식승인 얻어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최근 정부로부터 3백80MHz대역의 주파수공용통신(TRS)장비(모델명 스타렉스-TRS)를 국내 최초로 개발, 최근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3년말 8백MHz대역의 TRS장비에 대해 형식승인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3백80MHz대역 장비도 형식승인을 받음으로써 TRS장비시장에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형식승인을 받은 TRS장비는 지난해말 정보통신부가 신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망 구성과 뛰어난 확장성이 특징이다.

또한 개별, 그룹, 동시통화가 모두 가능하며 고속의 데이터전송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 및 로밍이 가능하다.

380MHz대역 TRS장비, 형식승인 획득

LG정보통신은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3백80MHz 전파대역을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TRS)장비 "스타렉스-TRS"가 정보통신부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3백80MHz 대역의 TRS장비 중 올해초 한화그룹이 수입한로hil사의 제품이 최초로 형식승인을 받았지만 국내개발장비 중에는 LG정보통신의 제품이 최초다.

삼성데이터시스템

'97년까지 30억원 투입 종합시스템 구축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은 22일 삼성그룹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97년까지 30억원을 투자, 멀티미디어 분야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종합관리시스템(NMS)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SDS는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데이터망통합을 완료하고 2단계로 음성망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의 운영관리를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를위해 SDS는 전용 툴인 AT&T사의 '온비전'과 HP사의 '오픈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래픽 오디오 뼈대를 이용한 장애정보 및 자동복구기능, 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정보기능, 네트워크자원의 계정정보 및 보안관리기능 등 주요기능을 모두 구현할 방침으로 향후 확장성을 위해 산업표준인 관리플랫폼을 사용할 방침이다. DC